



## 綠담笑담

나는 “오래된 미래”를  
입고 싶다

지속가능한衣생활, 중고매장 탐방기

#소담#녹색소비 #지속가능한衣생활  
#빈티지 #지속가능성 #중고마켓

김성동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선임팀장)



##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 녹색소비 “오래된 것 입기”

최근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옷, 패션 이다. 이걸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그런데 나는 옷에 관심을 가질 때 처음부터 빈티지, 세컨핸즈(second-hands) 옷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유는 친구 때문이다.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내 주변 옷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생각나 조언을 구했을 때, 빈티지 의류를 알려주었다. 친구의 말은 좋은 품질의 브랜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자연스럽게 세월의 흔적이 묻은 빛바램과 워싱감이 오히려 더 멋지다고 했다. 그렇게 친구와 만나 놀 때 빈티지 매장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빈티지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옷을 살 때 점점 빈티지, 세컨핸즈로 구입을 해야겠다 마음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구매하고 사는 것의 100% 새것이 아닌 빈티지, 구제, 세컨핸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내 옷장을 보면 대략 60%는 누군가 입던 옷이다.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때 60~80%는 누군가 입던 옷이다. 좀만 더 지나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 녹색소비실천에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아무리 빈티지라도 옷을 너무 많이 구매하면 환경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할 수 있다. 아직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모르겠다. 다만, 나름의 합리화를 해보자면 패스트 패션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의 가치를 지키며 이미 생산된 옷만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녹색소비가 아닐까...!

그래서 올해는 청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생활” 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지역에 있는 빈티지 마켓을 찾고 섭외하고, 또 옷이 많은 개인의 옷을 함께 나누고 파는 플리마켓을 열어서 사람들이 새옷보단 오래되었지만 가치가 있는 옷을 구매하도록 하는 녹색소비활동을 하고자 한다. 새것이 아닌 오래된 것을 입는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 생활속 녹색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고마켓을 꿈꿔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옷을 넘어서고 싶다. 모든 오래된 것을 다시쓰고 고쳐쓰는 문화로 녹색소비를 새롭게 브랜딩하며 누구나 생활속에서 녹색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는건 상시적으로 열리는 중고 플리마켓이다.

가보고 싶던 플리마켓이 있었다. 이름은 <구미래>, '구제가 미래'라는 의미이다. 아주 다양한 빈티지 의류부터 가구, 소품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청년부터 가족단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놀러간다. 구경하며 놀면서 자연스럽게 빈티지를 접하고 구매한다. 유럽에는 유명한 플리마켓들이 많다. 꼭 희소성 있는 제품이 모여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플리마켓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 생각이 얼마만큼 지속될지, 얼마만큼 실현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느리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시도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속에서 녹색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

## 답을 찾는 녹색소비자들의 여정

올해 20주년을 맞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비전&미션을 정리하며 녹색소비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는데 “녹색소비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고 가치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며, 판단의 주체는 녹색소비자”라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녹색소비 개념을 현실화 시키는 주체가 바로 녹색소비자”라는 부분이었다.

기후위기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녹색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지향하여 실천함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녹색소비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것이야’라고 말할 수 는 없다. 답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있다.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녹색소비자로 살고자 한다면, 녹색소비실천의 답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